



## 응답하라, '시골' 환경운동연합!

창립 6개월 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sup>1)</sup> 이모저모

신은미 \_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해비탈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군기지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시골에 무슨 대단한 일 있다고?”  
 “시골에서 무슨 환경운동이야, 그런 것도 사람 많은 서울에서 해야지.”  
 “출구석에 환경단체 하나 생겼다고 뭐가 나아지겠어?”  
 “활동비나 제대로 나오는 거야?”  
 “혼자, 게다가 차도 없애 어떻게 활동을 한다는 거야?”  
 “활동은 그럭저럭 한다고 해도 무슨 재미로 살려고?”

환경운동을 핑계로 시골로 간다고 했을 때, 가까운 친구들이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이런저런 조언을 했습니다. (조언이라기보단 악담에 가깝죠.) 그래도 용감하게 환경연합행(行)을 감행했던 건, 환경운동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 많고 문제 많은 도시에서 아등바등 사느니 한적한 시골에서 텃밭이나 일구며 여유롭게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은 꽤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이죠. 환경연합 인연으로 홍성으로 내려온 지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제 친구들의 조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해비탈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군기지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시골에 무슨 대단한 일 있다고?”

‘대단한 일’, 시골에 더 많답니다. 예산 대술면에는 전국 최대규모의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려고 하고 슬로시티 대흥면에는 마을을 동강내며 고속도로가 건설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1) 이하 ‘환경연합’



라 최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인 광천에서는 장항선 개량사업을 위해 석면광산에 터널을 뚫는다고 합니다. 예산, 홍성 어디랄 것도 없이 자꾸만 커지고 많아지는 축사 때문에 물과 토양이 오염되고 악취가 진동해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농공단지 화재사고로 유독가스가 다량 누출되었는데도 행정과 사업자가 누장대응을 해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도 있었고, 금강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까지 물을 끌어온다는 믿기 어려운 발표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대단한 일’이기도 하지만, 현장조사 다니며 좀 더 공부를 해보면 표면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우리 사회의 치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문제들을 안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산과 홍성 일도 많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대단한 일’ 투성이입니다. 한 지역의 수준이 충남의 수준일 수밖에 없고, 같은 권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까이 인접한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령으로 가려던 화상경마장을 기껏 막아놔더니, 홍성으로 온다고 하고, 그걸 또 막아놔더니 예산으로 오려고 합니다.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위에 폐기물처리장이 지어지면, 예산 대술면에 쓰레기장이 들어오는 건 시간문제고,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화력발전소에 무심하면, 충남 전체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송전탑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골에서 무슨 환경운동이야, 그런 것도 사람 많은 서울에서 해야지.”

‘사람 많은 서울’ 먹여 살리느라 지방, 특히 시골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뭐든 가져가고, 어디든 개발하려고 합니다. 도시였다면 벌써 길길이 난리였을 일들이 여기서는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고, 알아도 별 도리 없이 당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 없고, 인구 적으면 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저도 막상 시골 살아보니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형 개발사업인 고속도로나 철도 건설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정말 필요한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삶보다 도로계획이 상전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산과 강을 파헤쳐 좋은 자리에 떠억 하니 스마트휴게소란 걸 지어 도시민들이 관광을 오게 하겠답니다. 도시중심적으로 설계된 도로와 철도가 완성되면 젊은이들, 좋은 자원들이 더 쉽게 유출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홍성군은 ‘축산군’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가축사육량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 그렇답니다. 축사 없는 마을을 찾아보기 힘들고,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산된 고기요? 많은 양이 도시로 가지요. 가축을 사육하면서 생기는 분뇨와 오염물질, 도살 후 생기는 내장이나 피 등은 고스란히 두고 고깃덩어리만 말끔하게 포장해 가져갑니다. 물과 토양의 오염정도는 심각한 수준이고 축사 주변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말도 못합니다.

충남 서해안에 밀집되어 있는 화력발전소 전기생산량 가운데 충남 사람들이 쓰는 건 반도 안 되는 거

2) 충남의 에너지자급률은 266%로, 인천에 이어 전국 2위입니다.



다들 아시죠?<sup>2)</sup> 전기를 수도권으로 가져가기 위해 지나치게 많이 생산하고 생활권 가까이 고압송전탑도 뻗뻗합니다. 지역에 남은 건 미세먼지와 전자파로 인한 주민들, 수많은 동식물들의 고통입니다.

예산의 한 산은 채굴업자가 흙과 돌을 다 파내어 봉우리가 사라지고 맥도 끊겼습니다. 높던 산이 낮아지다 못해 다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흙과 돌은 (예산에서도 일부 사용하겠지만) 주로 대전이나 천안 같은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제 시골은 이렇게 도시에 흙과 돌, 산까지 빼앗겨 시골다운 맛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과 공기는 서울이 가장 깨끗할 거라는 웃지못할 농담도 떠돕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예산 대술면 산업폐기물처리장은 전국 최대규모입니다. 좋은 것은 다 가져가면서 더럽고 위험한 것만 지방으로 보냅니다. 충남에서는 예산 말고도 청양, 서천, 부여, 서산에서 각종 폐기물 처리장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시가 아닌 시골이 동네 복인가요? 농산물, 에너지, 사람까지 빼앗기고 유해시설, 기피시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환경운동, 시민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지요? 인구 적고 논밭 많은 충남은 활동가들에겐 여전히 할 일 많은 ‘블루 오션’<sup>3)</sup>입니다.

### “충구성에 환경단체 하나 생겼다고 뭐가 나아지?”

환경단체 하나 생겼다고 금세 뭔가 바뀌는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조금씩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7월 창립 이후 환경문제와 지역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있는 170여 분의 회원들을 발견했습니다. 환경연합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공식적으로 ‘커밍아웃’할 기회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걸 확인할 기회도 없었겠지요. 핵발전소와 4대강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 이에 이에 버금가는 지역 현안들이 있다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환경연합은 중앙의 환경이슈들을 지역과 연결시키는 역할도 하려고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 설치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영덕주민투표 현장에 지원도 가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 위한 청원도 받습니다. 멀리 있는 문제 같지만 실은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함께 공부하고 생활 가까이에서부터 해결해나가자는 겁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도청 앞 용봉산에도, 골프장을 여러 차례 막아냈던 가야산에도 케이블카가 생기지 말란 법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이 가뭄대책이라는 명분으로, 수계가 다른 보령이나 예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환경연합이 느리게나마 지치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의 다른 단체들에게 힘과 생기를 주는 것도 같습니다. 자기 분야의 일이 아니어도 지역에 필요한 일이라면 모일 수 있는 테이블도 생기고요. 잠자던 단체를 깨우기도 합니다. 청양이나 서천에서도 회원가입을 해주신 덕분에 이웃지역 사정도 살피게 되고 정도 돈독해 집니다.

3) 여기서의 블루 오션은 ‘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영역’인 동시에 ‘우울함의 바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응답하라, '시골' 환경운동연합!

환경연합 생기고 가장 나아진 것은 바로 제 삶입니다. 도시중심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 자치와 자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겨울에라도 냉장고 코드를 뽑아볼까 고민하고 유명한 중앙활동가보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지역활동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사육 현황을 조사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고기를 덜 먹게 되고, 생활폐수가 하천을 얼마나 오염시키는지 안 다음부터는 라면국물도 남기지 않게 됩니다.

“활동비나 제대로 나오는 거야?”

예산홍성환경연합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단체라 재정이 그리 넉넉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연합을 만들고자 초기에 애쓰신 20여 분을 시작으로 170명의 회원이 적게는 5천 원, 많게는 2만 원씩 꼬박꼬박 회비를 납부하십니다.

쌀값은 떨어지고 농촌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 와중에 회비로 내주시는 5천 원, 1만 원은 도시에 사는 5천 원, 1만 원과는 질이 다릅니다. 도시에선 커피 한두 잔 값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선 우리밀이 3kg, 유기농쌀이 3kg, 유기농사과가 열 알입니다. 여름내 땀 흘려 농사지어 번 돈, 환경연합처럼 어렵사리 단체를 꾸려가는 동료활동가들의 돈이 회비라고 생각하면 허투루 쓸 수도 없습니다. 돈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면 회비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가난할지언정 작은 단체가 어떻게 든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회비가 넉넉진 않고 어디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sup>4)</sup>, 가끔 현수막도 달고, 회원모임도 조직하고, 조사사업도 하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활동가 월급도 꼬박꼬박 나옵니다. (비상근으로 일하시는 사무국장님을 비롯해, 지역에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는 운영위원님들은 모두 무급으로 일하고 계셔서 늘 고맙고 미안합니다.)

최근에는 운영위원이자 회원이신 지역 농부님께서 수익금 전액을 환경연합에 쓰라며 사과즙 100박스를 선물 내어주셨습니다. 책 사볼 돈 없을까봐 책을 선물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직접 짠 들기름, 농사지은 쌀을 주시기도 합니다. 밥과 술은 수도 없이 얻어먹었습니다. 도시활동가들보다 월급은 적을지 몰라도, 도시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선물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혼자, 게다가 차도 없애 어떻게 활동을 한다는 거야?”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혼자, 차 없이, 여러 가지 일을 하자면 지치기도 합니다. 활동범위가 예산과 홍성 두 지역이고 단체 설립 초기인데다 현안이 많은데, 상근자가 한 명이니 힘들 수밖에

4) 충남의 환경연합들(충남환경운동연합)도 막내단체가 창립 초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정부분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원' 보다는 '나눔'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혼자 일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혼자서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싶을 때도 있었는데, 일은 어찌어찌 되었습니다. 생각 할수록 고맙고 신기한 일이지만, 지속가능한 활동, 건강한 지역조직을 위해서는 빨리 동료활동가를 구하는 게 상책이겠습니다.<sup>5)</sup>

차가 없는데 충남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하니 좀 피곤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환경현안이 있는 곳은 유독 멀거나 외진 곳입니다. 하지만 막상 누가 차를 그냥 준다고 해도 로드킬, 에너지문제, 신규 고속도로 건설 등 자동차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을 현장에서 자주 접하다보니 맘 편히 차 몰고 다니기는 진작에 틀렸습니다. 이리저리 고민하는 사이, 저는 충남의 대중교통체계에 대해 꽤나 전문가가 되었고 차 있는 분들께 당당하게 신세를 지기도 하며 출장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sup>6)</sup>

혼자 일하는 것, 차 없이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현안에 대응하느라 환경문제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도시든 시골이든 환경과 관련 없는 일은 거의 없고, 바쁘지 않은 환경단체는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큼지막한 현안들 외에도, 밭에서 비닐 태우는 것부터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문제, 먹거리 안전, 무분별한 태양광시설 설치 등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축하듯) 현안을 찬찬히 챙겨나가다보면 일도 줄어들고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것도 결국은 하나하나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조금 힘이 조금 가시긴 합니다.

### “활동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무슨 재미로 살려고?”

시골 사는 재미로 살려고 합니다. 바쁘더라도 짬을 내, 시골집 마당에 텃밭을 가꾸고 거기서 난 것들로 동네친구들과 부침개에 막걸리도 한 잔 하는 재미 말입니다. 생태화장실에 모은 똥과 오줌으로 거름을 하고 작물들이 쑥쑥 크는 걸 보면 환경운동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에 가깝게 살아야 자연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텃밭이지만, 내가 먹을 것을 가꾸고 이웃과 나누는 재미, 환경운동의 본질과도 같은-자급과 공동체정신에 대한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농촌에 있는 환경연합은 신기하게도 농사일정을 따라갑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같은 농한기에는 사무국도 한가하고 바쁜 모내기철이나 김매기철에는 사무국도 덩달아 바빠요. 지역과 자연의 리듬을 따라가면 훨씬 일이 수월하다는 사실, 농촌에 있는 환경연합은 농촌스럽게 활동해야 한다고 사실을 철이 바뀔 때마다 깨닫습니다. 바쁜 철엔 아무리 중요한 애길 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강연자리를 마련해도 오지 않습니다. 대신 농한기에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삼삼오오 모여 자연스럽게 현안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절 바뀌는 재미, 철에 맞게 사는 재미도 상

5) 혹시나 이 글을 보고 함께 환경운동 해보자고 나서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6) 본 지면을 빌어, 차 없는 활동가에 대한 배려, 자발적 카풀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응답하라, '시골' 환경운동연합!

당합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는 재미도 있습니다. 20년 넘게 지역에서 활동해온 선배님들, 환경연합을 매개로 만난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존경해마지않던 유기농농부도 한둘이 아니고, 냉장고 안 쓰는 생태미술가, 귀농20년차 생태딛간 전도사, 삼푸는 안 쓰는 노푸족 청년 등 가까이 있는 생활형 환경운동가들은 전업활동가인 제게 재미를 넘어 신선함을 선사하죠.

자연의 일부로서 '순리대로-자연스럽게' 사는 재미, 그 재미야말로 제가 왜 시골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자연스럽게' 살 책임과 권리를 누리며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 '시골'환경연합에서 활동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 예산홍성환경연합은 2015년 7월 창립총회를 거쳐 전국적으로는 환경연합 52번째, 충남에서는 천안·아산, 당진, 서산·태안에 이어 네 번째 지역조직이 되었습니다. 160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활동소식은 facebook.com/yshs.kfem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홍성사무국은 홍동 마을활력소에, 예산사무국은 예산NGO센터에 두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041-634-2014)으로 연락주세요.

